



4년
유학생 교육기부단 운영

전주매일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음 2월 23일) 제347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산업기술저변확대를 위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운중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지역 주도 산업기반 키운다

전북자치도-산기평, 지역특화형 R&D 발굴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과 연구개발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이 주도해 자립적으로 산업기반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산기평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산업기술저변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산기평은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과제 기획, 평가·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준호 경제부지사, 오택립 미래산업국장, 산기평 전운중 원장 및 김성호 주력산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김준호 경제부지사, 오택립 미래산업국장, 산기평 전운중 원장 및 김성호 주력산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기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 사업의 지역특화 연구개발 기획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주요 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협회 지원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산기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탄소소재, 이차전지, 항공·로봇, 첨단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산업 발전의 저변을 확대할 구상이다.

여기에 지역기반의 산업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4월부터 운영해 연구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규과제 기획 및 국가예산 확보 등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산업기술혁신 기업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산기평과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바이오 16건, 소재 15건, 모빌리티 10건 등 총 41건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끊임없는 산업기술 혁신 노력만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며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산업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발굴 협력 및 산업혁신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과 발원산업 클러스터, AI융합 디지털 전환 및 미래차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대라는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산기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구개발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우분 연료화 실증 착수 새로운 에너지산업 선도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부로부터 승인받아... 전국 최초 이달부터 생산 가능... 품질기준 적합 본격 실증 나서
1일 650t 활용시 자동차 3만7100대 1년 미운행 효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우분을 고체로 연료화하는 신기술사업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승인을 받았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산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또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민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

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전북자치도는 30회에 걸친 실무협의 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합의를 찾아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로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비용 부담없이 지원받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이다. /김재훈 기자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며, 올해 4월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울리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지원화센터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가 입증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고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만드는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 이번엔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게 되었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와 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신임 행정부지사에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54·사진)이 1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자리로 옮긴다.



익산 출신인 최병관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장, 전북도의회 사무처장,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등을 지냈다. /김재훈 기자

“총선 후보자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4일까지 TV토론회 개최
KBS전주·전주MBC·JTV전주방송 통해 생중계
각 방송사 홈페이지·유튜브 등 통해서도 시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전북토론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지난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열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후보자 TV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선거구별로 개최되며,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KBS전주, 전주MBC, JTV전주방송을 통해 생중

계되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및 자막방송도 실시한다.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www.debates.go.kr)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